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20일 수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20호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편지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평양합동회의 - 2002년 2월 17일 평 양

미합중국 대통령 죠지 더블유. 부쉬 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에서 열린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평양합동회의의 참가자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최근 조선반도정세가 다시금 악화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통일과정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된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인 운동들을 벌리기로 결정하였음을 당신에게 알리는바이다.

당신도 아는바와 같이 2년전 조선의 북과 남은 력사적인 최고위급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조선민족끼리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공동체는 일치하게 북남공동선언을 공식 지지하였다.

따라서 그 누구도 조선문제에 끼여 들 명분도, 간섭할 권리도 없으며 특히 조선반도의 분렬에 책임 있는 미국은 조선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리행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1994년 10월에 체결된 조미기본합의문과 2000년 10월에 체결된 조미공동콤뮤니케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무력위협을 하지 않을것을 공약한바 있다.

당신은 현 미행정부의 최고당국자로서 이전 행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 모든 합의들을 존중하고 계속 리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말로는 조선반도의 화해과정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힘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정책의 현지 집행자는 남조선강점 미군이다.

최근 당신이 존엄 높은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모해하다 못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힘으로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호전성과 지배주의를 명백히 보여 준다. 이것은 유엔헌장이 인정하는 국가의 자주권존중원칙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조선인민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공갈이고 도발이다.

당신은 선전포고와 같은 이번 대조선적대시발언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기의 호전적본색을 국제사회앞에 여지없이 드러내 놓았다.

본 회의 참가자들은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대조선적대시정책들을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정책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규탄한다.

우리는 당신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과정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전체 조선인민앞에 공식 사죄할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미국정부가 그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조미대화를 재개해야 하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림시중지를 법제화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의에 응해 나옴으로써 자기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현 미행정부가 조선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는데 장애로 되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즉시 철수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모든 합동군사연습들과 도발행위들을 그만 둘것을 공약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고 조선민족의 화해와 자주적평화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평양합동회의 참가자일동-

새해맞이 준비위, 부시방한관련성명

≪통일을염원하는2002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시 미대통령이 방한하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장래 민화협 상임의장은 취지설명을 통해 최근 부시 미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로서는 소름끼치는 얘기≫라며 ≪4대 강국에 의해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최근 부시 미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발언과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나 미국의 미사일방어(MD)와 관련한 국방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키는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부시대통령의 이런 정책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방한 반대

1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편지
1 새해맞이 준비위, 부시방한 관련 성명 발표

노작

2 민족통일전선문제에 대하여 (2)

세기와 더불어

3 3장 1절 선진사상의 탐구 (1)

칭송

5 가장 숭배하는 스승
5 영광빛나라 **김정일**세기여
5 누리에 넘치는 위인숭배열기

한국민족민주전선

6 부시방한반대투쟁과 청년학생들의 자세
6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18일

운동강좌

15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3)

광고

15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총비서

조국통일3대헌장

16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1)

조선중앙통신

7 주체 91, 2월 18일
8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평양합동회의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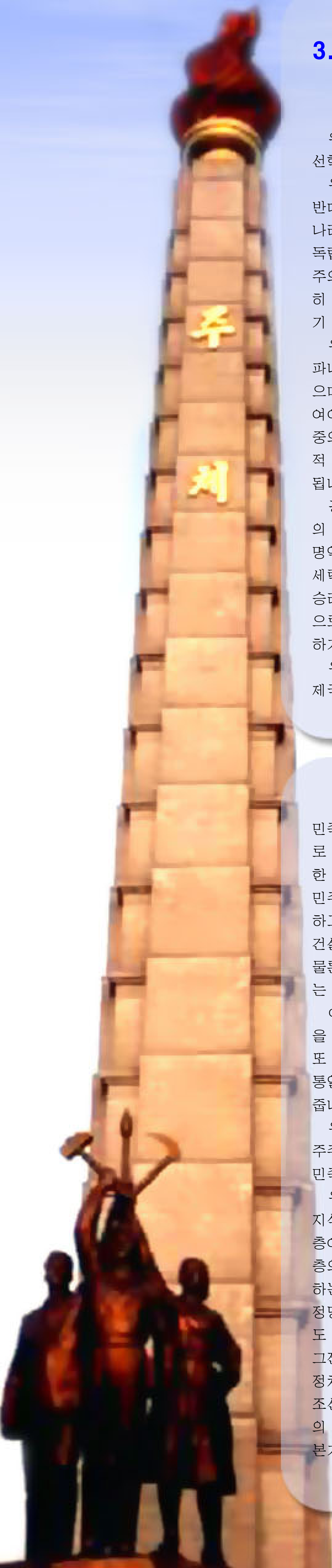
9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 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아리랑뉴스

10 부시방한하는 날, 전국에서 부시방한 반대투쟁
10 부시방한 첫날 ≪그림자투쟁≫ 시작
10 10개사회단체 부시방한반대 농성돌입
11 새해맞이 준비위, 부시방한 관련 기자회견
11 한 · 일 공동선언발표 기자회견
11 미대사관 앞 집회시위
12 대구경북 각계대표 시국선언
12 전교조부시방한반대 선언 / 사회당 평화군축촉구대회
13 광주전남지역 잇따른 시위, 반미감정 고조
13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기자회견
13 교회에 내걸린 ≪부시는 사탄≫ 현수막
14 ≪민심체크≫ 한미관계보다 남북관계가 우선

민족통일전선문제에 대하여 (2)

민주청년단체가 주최한 정치강좌에서 한 강의 / 1945년 12월 22일



3. 조선혁명의 당면임무와 민족통일전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의 조선혁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임무는 전쟁과 침략세력을 반대하고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어깨 겯고 나갈 수 있는 완전자주독립국가를 세우며 모든 분야에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의 후과와 봉건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선 이 건국위업은 어떠한 당파나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으며 광범한 대중의 힘을 옳게 조직 동원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힘을 적극 조직 동원하려면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굳게 묶어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광범한 대중을 묶어 세우는 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 담보입니다. 대중을 전취하여 혁명역량의 우세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반혁명세력의 공세를 물리칠 수 없으며 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기 위한 사업부터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 잔재세력을 비롯한 제국주의 앞잡이들과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인민들을 민주주의 깃발아래 묶어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다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고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쓸어버리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라의 경제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을 모조리 파괴하였으며 농촌경리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과 메마른 땅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려면 어느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되며 전체 인민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 하며 전체 인민이 다 동원되어 나라의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고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복잡한 정세에서 건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조선과는 달리 지금 남조선에는 미제의 비호 밑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세력이 집결되어 있으며 그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남아있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도 남조선 반동파들과의 연계 밑에 우리 인민의 건국위업을 파탄시키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애국자의 탈을 쓴 가짜혁명가들과 종파분자들도 대중을 분열시키려 하며 인민들이 어느 길로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는 우리에게 새 민주조선건설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묶어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되고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가 건설되어야만 각계각층 인민들이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적 억압과 착취를 받아왔습니다. 노동자, 농민들과 지식인, 소상인, 수공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자본가들도 일제놈들로부터 민족적 압박과 멸시를 받았으며 일본독점자본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끊임없이 파산 몰락되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전 민족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똑똑히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오늘 무산계급뿐 아니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까지 포함한 전민족이 우리 나라를 또다시 제국주의 식민지로 되게 하려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파들을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새 조선건설에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은 물론,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도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을 튼튼히 형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망라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원하는 모든 정치적 역량을 민족통일전선에 묶어 세워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지식인, 종교인, 지주, 자본가와 같은 각계각층이 있는데 그들은 저마다 자기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방 후 이미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었으며 또 앞으로도 정당, 사회단체들이 더 조직될 것입니다. 그전에 해외에 있던 조선사람들도 여러 가지 정치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던 조선사람들 속에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단체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해방된 오늘도 역시 우리 나라에 근로대중을 위한 정치단체들과 지주, 자본가들을 위한 정치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계각층 군중을 민주주의적 대중단체들에 망라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 민족통일전선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야 합니다. 특히 청년일꾼들은 우리 당의 민청조직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하루빨리 유일한 청년조직인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고 모든 애국적 청년들을 묶어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각계각층 애국적 인민들을 민주주의적 대중단체들에 망라시키고 민주주의 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을 염원하는 정당, 사회단체들을 민족통일전선에 굳게 묶어 세움으로써 모두다 새 조국 건설에서 힘을 합쳐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족통일전선을 굳게 결성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을 묶어 세우려면 무엇보다 먼저 공산당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공산당은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가장 올바른 정치노선을 내세우고 있으며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그 어느 정당보다도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적 당입니다. 공산당을 강화하여 그 영도적 역할을 높여야만 우리의 민주역량을 튼튼히 묶어 세우고 인민대중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는 인민대중을 옳게 영도하여 나갈 수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없었습니다.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었으나 일제의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저주로운 파벌싸움으로 하여 1928년에 해산되었습니다. 물론 그후에도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계속되었고 공산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졌으나 해방될 때까지 공산당을 내오지 못하였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없다보니 대중을 조직하는 사업이 당의 통일적 지도 밑에 진행될 수 없었으며 지난날 국내에서 벌어진 반일투쟁들이 적지 않은 경우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고 따라서 실패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이러한 쓰라린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모두다 공산당의 영도가 없이는 우리의 건국사업을 잘해나갈 수 없으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공산당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도와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산당의 영도 밑에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묶어 세우고 그들을 새 민주조선 건설에 적극 조직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1권 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1. 선진사상의 탐구 (1)

나는 집에서 한달가량 머무르다가 설까지 쇠고 이듬해 정월중순에 무송을 떠났다. 내가 길림에 도착한 것은 행인들의 왕래가 번잡한 한낮이었다. 길을 물을 때마다 아버지친지들의 주소가 적혀있는 수첩을 꺼내들고 언손을 놀려가며 종이장을 번지는 것이 거치장스러울것 같아서 나는 미리 내가 찾아야 할 거리와 번지들을 머리속에 다 외워두었다.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대도시의 번창한 풍경은 첫 순간부터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지대에서만 살아온 나를 위압하는상 싶었다.

나는 개찰구를 나선 다음에도 가슴을 치미는 흥분때문에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나를 새 생활에로 부르는 신천지의 약동하는 모습을 오래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내가 본 도시의 풍경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리에 물장사군들이 많은 것이였다. 물의 도시로 이름나 한때는 선창이라고도 불렀다는 고장인데 음료수가 부족하여 저렇게 물장사만 성행해가니 길림이라는 도회지의 생활이 점점 각박해질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짜증스럽게 투덜거리였다. 물 한모금에도 수판알을 튀겨야 한다는 도시생활의 중압이 첫 걸음부터 심신에 육박해왔지만 나는 그 중압에 저항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쭉 펴고 활개를 치며 도심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갔다.

길림역에서 북산방향으로 뻗은 차루가를 따라 얼마쯤 걸어가니 도시를 성내와 성외로 구분하는 성벽이 보이고 조양문이라는 현판이 달려있는 성문이 보이였다. 조양문 가까이에는 신개문이라는 성문이 있었다. 길림에는 조양문과 신개문외에도 파호문, 림강문, 복수문, 덕승문, 북극문을 비롯하여 모두 1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그 매 성문을 장작상군대가 지키고 있었다. 풍화작용으로 군데군데 허물어진 길림의 고색창연한 성벽은 이 도시가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은 성시라는 느낌을 주었다.

길림은 처음 와보는 생소한 고장이였으나 별로 낯이 설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와보고싶던 곳이고 아버지의 친구들이 많은 곳이어서 그랬는지 모른다.

길림시절

나의 수첩에는 내가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 할 아버지의 친구들과 친지들의 주소가 십여개나 적혀있었다. 오동진, 장철호, 손정도, 김사헌, 현묵관(현익철), 고원암, 박기백, 황백하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길림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들이였으며 내가 만나보아야 할 사람들이였다.

나는 의례방문의 첫 순서로 오동진을 선정하고 차루가와 상부가사이에 있는 그의 집부터 찾아갔다. 사실 그때 나의 마음은 은근히 긴장되어있었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모처럼 주선해준 화성의숙을 중퇴한 것 때문에 오사령이 못마땅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오동진은 이전과 다름없이 나를 반갑게 대해주었다. 내가 화성의숙을 그만두고 길림으로 온 사연을 말했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중한 표정으로 머리만 끄덕이었다.

≪소문도 없이 길림에 불쑥 나타난 너를 보니 너의 아버지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아버지도 숭실중학교를 그렇게 갑자기 중퇴하셨더랬지. 나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여간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퍽 이후에는 아버지가 결심을 옳게 하셨다고 생각하였다. 아무튼 여섯달만에 의숙을 포기하고 길림으로 온 그 결단성이 놀랍다. 길림이 리상에 맞는 고장이라면 여기서 너의 우물을 파거라.≫

나의 길림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 오동진이 한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역시 오동진다운 활달한 사고방식이라는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가 길림에 와서 공부하게 된 바에는 이번 걸음에 어머니와 동생까지 데리고 솔가이주하여 여기다 살림을 펼걸 그랬다고 하면서 서운해하였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왔을 때에도 오동진은 우리 어머니에게 김선생의 친구들이 많은 길림으로 이사하라고 여러번 권하였다. 어머니는 그 권고를 고맙게 여기면서도 무송에서 자리를 뜨지 않았다. 양지촌에 산소가 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어떻게 길림으로 훌쩍 이사를 가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길림육문중학교

그날 오동진은 자기의 수하에서 서기로 일하는 최일천을 나에게 소개해주었다. 오동진이 서기자랑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최일천에 대해서는 나도 일정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의부내에서 문장가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이날의 상봉을 계기로 하여 나와 최일천은 그 후 특별한 동지적 뉴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날 오후 오동진은 나를 삼풍잔에 데리고 가서 독립운동자들에게 인사시키었다. 그 독립운동자들속에 김시우가 소개신을 써주면서 만나라고 하던 김사헌도 있고 정의부 경호대장으로 활동하는 장철호도 있었다. 삼풍잔이란 삼풍려관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려관을 ≪잔≫이라고도 한다. 김사헌과 장철호 외에도 이 려관에는 이름모를 독립운동자들이 많이 와있었다.

삼풍려관은 태풍합정미소와 함께 길림에서 독립운동자들이 숙박소 겸 련락장소로 리용하는 2대거점이었다. 조선에서 들어오는 이주민들도 상품려관을 많이 리용하였다. 이 려관주인은 손정도목사의 동향인이었다. 그는 평안남도 증산에서 살다가 손목사의 권유로 길림에 들어와 삼풍려관을 운영하였다. 간판은 려관이지만 기숙사나 공회당과 같은 인상을 더 주는 그런 집이었다.

삼풍려관에서 일본령사관까지의 거리가 100메터가량밖에 되지 않았다. 길림지방 정탐활동의 총본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령사관의 문전이나 다름없는 려관에 밀정들과 경찰들이 그처럼 촉수를 늘이고 찾지 못해 애를 쓰는 반일독립운동자들이 무시로 찾아드는 것은 재미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독립운동자들은 ≪등잔밑이 어둡다.≫고 하면서 그 려관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실지로 삼풍려관에서 애국자들이 붙잡혀가는 불상사는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조직들을 내온 다음에는 이 려관을 자주 리용하였다.

김사헌은 김시우의 소개신을 보고나서 나에게 자기가 잘 알고 있은 김강이란 조선사람이 길림육문중학교에서 교원을 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고 물었다. 시내에 신흥사회계에서 세운 사립학교인데 길림에서는 그중 경향성이 좋다는 것이였다.

길림육문중학교가 경향성이 좋은 학교라는 것은 사회계에 널리 알려져있었다. 그것은 ≪길장일보≫가 이 학교에 대한 보도를 여러번 하였기 때문이었다. ≪길장일보≫는 벌써 1921년에 육문중학교를 경영은 참담하나 성적이 매우 훌륭하여 사회 각계의 찬조를 받는 학교라고 소개하였다.

자금문제와 교장의 직권람용문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육문중학교에서는 교장이 자주 교체되었는데 내가 길림에 도착한 그 당시에는 남경금릉대학출신인 장음헌을 대신하여 리광한이 교장으로 부임된지 얼마 안된다고 하였다.

교장을 네번이나 갈아치운 것만 보아도 육문중학교가 정의와 법도를 얼마나 중시하는 학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육문중학교의 이 혁신적이 교풍이 나의 마음을 끌어당기였다. 김사헌은 다음날 나를 육문중학교의 김강선생한테 소개해주었다. 김강은 영어를 잘하였다.

나는 그의 안내로 리광한교장을 만났다. 리광한은 중국민족주의좌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은래총리의 중학시절동창이였고 어려서부터 주총리의 영향을 받은 량심적인 지식인이었다. 내가 주총리와 리광한교장의 연고관계를 알게된 것은 수십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다. 언젠가 나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주은래총리를 만나 청년시절을 회고하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중국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리광한교장의 이름을 들었다. 주총리는 그 말을 듣자 여간만 반가와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천진에서 남개대학부속 중학교에 다닐 때 그와 같이 공부하였다고 하였다.

리관한교장은 그날 나에게 학교를 졸업하면 장차 어떤 일을 할 생각인가고 물었다. 내가 나라를 찾는 일에 한몸 바치고 싶다고 서슴없이 대답했더니 그는 아주 좋은 포부라고 긍정해주었다.

흉금을 터친 담화의 덕이라고 할지 리광한교장은 1학년을 거치지 않고 2학년에서 공부하게 해달라는 나의 요구도 쾌히 들어주었다.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활동을 하던 시기 나는 이 선생한테서 여러번 도움을 받았다. 그는 내가 혁명사업때문에

자주 결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었으며 군벌당국에 매수된 반동교원들이 함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모저모로 보호해주었다. 군벌이나 령사관경찰들이 나를 붙잡으러 올 때면 미리 련락하여 울타리밖으로 빼돌리기도 하였다. 교장이 량심적인 지식인이다보니 그 밑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발을 붙이고 일할 수 있었다.

내가 육문중학교에 입학하고 돌아오자 오동진부부는 나에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 들어가지 말고 자기네 집에서 다니라고 하였다. 사실 그때 내 처지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뒤받침으로 공부를 해야 하였는데 우리 어머니는 병약한 몸이었다. 어머니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하루종일 쉬지 않고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품을 팔아서 한달에 3원 정도씩 나에게 보내주었다. 그 돈으로 월사금과 공책값, 교과서값을 대고나면 신 한컬레 사신기가 힘든 형편이었다.

이런 처지에서 나는 아버지의 친구들의 권고와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길림에 가서 처음에는 오동진의 집에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였고 그가 체포된 다음에는 장철호의 집에 한 1년, 현묵관네 집에도 몇달 그리고 오동진의 후임으로 정의부의 사령을 하던 리웅의 집에도 얼마간 가있었다.

당시 길림에 있던 명사들이 대체로 아버지하고 친분이 깊은 사람들이어서 여러모로 나를 돌봐주고 사랑해주었다. 나는 아버지의 친우들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과정에 독립군간부들과 독립운동지도자들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길림에 드나들던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었다.

학교 기숙사

그 당시 정의부간부들은 거의다 길림에 상주하고 있었다. 정의부는 행정, 재무, 사법, 군무, 학무, 외교, 검찰, 검독 등 어마어마한 중앙기구와 지방기관까지 꾸려놓고 관할구역의 조선동포들한테서 세금까지 받아내면서 한개 독립국가와 맞먹는 행세를 하였다. 이 방대한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 정의부는 150여명의 군인들로 조직된 상비적인 중앙호위대까지 가지고 있었다.

길림은 중국의 한개 성소재지로서 봉천, 장춘, 할빈과 더불어 만주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의 하나였다.

길림독군서에서는 장작림의 4촌동생 장작상이 우두머리노릇을 하였는데 그는 일본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일본사람들이 누가 공산당원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고소하여도 그는 당신들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버리군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에게 무슨 정치적 견해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무식하고 자존심이 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러한 특징이 혁명가들과 사회운동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만주지방으로 이주해온 조선사람들의 대부분이 또한 이 길림성에서 살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일본군경들에게 쫓겨다니는 조선 독립운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길림에 많이 모여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자연히 조선사람들의 정치활동무대로 되었으며 그 중심지를 이루게 되었다. ≪동 3성에서의 배일의 책원지는 길림≫이라고 한 일본사람들의 평가가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길림은 1920년대 후반기 만주에서 조선민족주의운동의 기본세력이었던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의 수뇌들의 집결처로 되어 있었다. 독립운동자들이 신문을 발간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은 화전, 흥경, 룡정 같은데서 많이 하였지만 실지 그 수뇌들이 모여 활동한곳은 길림이었다.

엠엘파, 화요파, 서상파와 같은 종파분자들이 제각기 자기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돌아치던 곳도 바로 길림이었다.

공산주의운동자들가운데서도 내노라고 하는 명물들은 거의다 이 길림에 드나들었다.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종파분자, 망명자 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모여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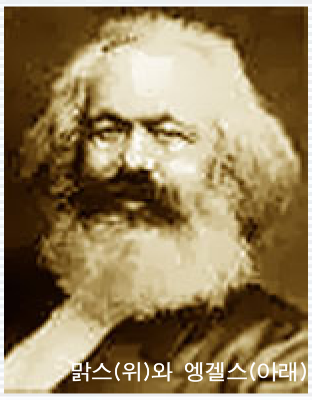
새것을 지향하고 진리를 찾아 모대기는 청년학생들도 이 성시로 찾아왔다. 한마디로 말하여 길림은 형형색색의 사상조류가 집결된 곳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내가 공산주의기치를 들고 혁명활동을 벌였다.

내가 길림에 왔을 때 ≪ㅌ·ㄷ≫의 몇몇 성원들은 화전에서 약속한대로 이 도시에 와서 문광중학교를 비롯한 시내 학교들과 기관구, 선창 등에 적을 붙이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길림에 타나났다는 소문을 듣기 바쁘게 오동진사령의 집으로 뛰어왔다. ≪돈이 귀하고 마실 물이 귀하고 땔것이 귀하지만 책이 많아서 좋다.≫는 것이 그들의 길림인상이었다.

나는 책이 많으면 배고픈 고생과도 타협할 수 있다고 롱을 하였다. 그것은 나의 진정이기도 하였다.

그들도 육문중학교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교직원들 중에 국민당우파도 있지만 절대다수의 교원들은 공산당계렬이 아니면 삼민주의의 숭배자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었다.


맑스(위)와 엥겔스(아래)

후에 판명된데 의하면 상월선생도 공산당원이었고 마준선생도 공산당원이였다고 한다.

우리는 새로운 고장에서 혁명의 진리를 마음껏 배우며 ≪ㅌ,ㄷ≫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 바쳐 싸워나가자고 결의하였다.

화전에 남아있던 ≪ㅌ,ㄷ≫의 성원들도 활동무대를 찾아 무송현, 반석현, 홍경현, 류하현, 안도현, 장춘현, 이통현 등 만주일대의 조선인거주지역들로 떠나갔다. 그들가운데는 출신중대에 들어가 다시 독립군의 모자를 쓴 동무들도 있었다.

길림과 같이 복잡한 도시에서 얼마되지 않는 핵심들을 가지고 만사람이 우리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게 하며 ≪ㅌ,ㄷ≫의 리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운다는 것은 헐한 일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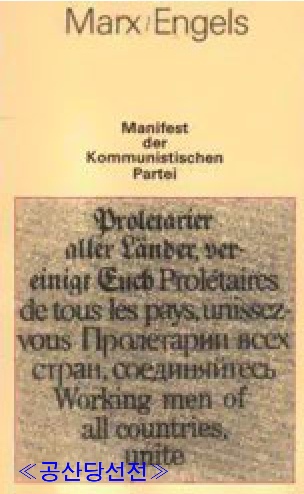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한점의 불씨가 되어 주변의 열사람, 백사람을 불러일으키고 그 백사람이 다시 천사람, 만사람의 심장을 달구어 세계를 변혁할 굳은 결심에 차넘치고 있었다.

길림에서의 나의 활동은 맑스-레닌주의를 더 깊이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길림으로 올 때 화전에서 시작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탐구를 본격적으로 더 깊이 해보자고 결심하였다. 길림의 사회정치적분위기는 새 사조를 깊이 파고들려는 나의 결심을 부채질해주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보다도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의 저작들을 탐독하는데 더 열중하였다.

당시의 중국은 대혁명시기여서 쏘련이나 일본에서 발간되는 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출판하였다. 베이징에서는 ≪번역월간≫이라는 잡지도 찍어냈는데 거기에 청년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진보적인 문학작품들이 자주 실리었다. 무송이나 화전에서 볼 수 없었던 책도 길림에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한테는 책을 살만한 돈이 없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그때 나는 운동화도 학교에 갈 때에만 신고 집에 와서는 거의 맨발로 다니었다.

그때 우마항거리의 도서관에서는 한달에 열람료를 10전씩 받았는데 나는 그 열람권을 달마다 떼가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도서관에 들려 몇시간씩 책과 신문을 읽군 하였다.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여러가지 출판물들을 볼 수 있었다.

책방에 좋은 책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도 돈이 없어 못살 때에는 부자집학생들을 부추겨 사게 하고 그들이 사온 다음 그 책들을 빌려다보군 하였다. 돈많은 집 자식들가운데는 읽지는 않으면서도 멋을 부리기 위하여 책을 사다가 장식용으로 꽂아두는 학생들이 있었다.



≪공산당선전≫

그 시기 육문중학교에서는 학교관리를 민주주의적으로 하였다. 도서주임도 반년에 한번씩 학생총회에서 선출하였다. 선출된 도서주임은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세우고 책을 사들일 권한을 가지였다.

나는 육문중학교시절에 두번이나 도서주임으로 선거되었다. 그 기회를 리용하여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많이 사들이었다. 책이 많고보니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독서시간을 1분1초라도 더 얻어내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차례진 시간안에 하나라도 더 많은 책을 읽고 그 본질을 깊이 알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읽게 하고는 그 책에서 중심이 무엇이며 배운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꼭 쓰는 습관을 키워주었다. 아버지가 키워준 이 습관이 크게 은을 내였다. 중심을 잡아쥐면서 책을 정독하게 되면 아무리 복잡하게 뒤엉킨 내용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짧은 시간안에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다.

내가 중학시절에 밤을 새우며 책을 본것은 단순한 취미나 탐구심때문만이 아니었다. 나는 학자가 되고 그 무슨 출세의 길을 틔우려고 책을 파고든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일제를 물리치고 나라를 찾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고 근로하는 인민들을 잘 살게 하겠는가? 내가 책에서 찾고싶었던 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었다. 어디서 무슨책을 보건 나는 항상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맑스-레닌주의를 교조로가 아니라 실천의 무기로 대하게 되고 진리의 기준을 추상적인 리론에서가 아니라 항상 조선혁명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찾으려는 나의 립장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싹텄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시기 ≪공산당선전≫, ≪자본론≫, ≪국가와 혁명≫, ≪임금로동과 자본≫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고전들과 그를 해설한 도서들을 손에 잡히는대로 읽었다.

정치서적들과 함께 혁명적인 문학작품들도 많이 읽었다. 내가 그때 제일 흥미를 가지고 읽은 것은 고리끼와 로신의 작품들이었다. 무송이나 팔도구에 있을 때는 ≪춘향전≫, ≪심청전≫, ≪리순신전≫, ≪서유기≫와 같이 옛날생활을 담은 책들을 많이 읽었다면 길림에 와서부터는 ≪어머니≫, ≪철의 흐름≫, ≪축복≫, ≪아큐정전≫, ≪압록강가에서≫, ≪소년방랑자≫와 같은 혁명적인 소설들과 당시의 현실생활을 담은 진보적인 소설들을 많이 읽었다.

후날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고난의 행군과 같은 어려운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도 나는 길림시절에 본 ≪철의 흐름≫과 같은 혁명적이 소설들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군 하였다. 문학작품은 사람들의 세계관 형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나는 작가들을 만날때마다 혁명적인 소설들을 많이 써내라고 말하군 한다. 지금은 우리 작가들도 혁명적인 대작들을 많이 써내고 있다.

우리는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현상과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직접 목격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정치적으로 각성되었다. 그때 조선에서 만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가운데는 길림을 경유하여 다른 고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국내의 참상을 수시로 청취하였다.

압록강을 건너온 이주민들은 단동을 거쳐 남만철도로 장춘에까지 와가지고는 거기에서 동지철도를 리용하여 북만쪽으로 가든가, 길장선을 타고 길림을 경유하여 그 근방의 오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봉천으로부터 봉해선, 길회선을 거쳐 돈화, 액목, 녕안 방면으로 가기도 하였다.

추운 겨울철과 이른 봄철이면 길림역과 려관들에서 조선이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주민들가운데는 별의별 곡절을 겪은 사람들이 다 있었다.

일화

가장 숭배하는 스승

1964년 말 몹시 추운 어느 날이였다.

아침 일찍이 출근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일꾼의 사무실로 들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벽에 교외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보니 버스정류소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시민들의 교통문제를 풀어줄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꾼이 대책을 연구해보겠다고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는 언제까지면 되겠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주일이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한시가 새로운데 어떻게 한 주일씩이나 기다리겠는가 그러지 말고 저녁 8시에 정문에 나오라고 나와 함께 조언을 받으러 선생님들을 찾아가 보자고 말씀하시었다. 일꾼은 그이께서 여객운수문제를 전공하는 학계의 선생들을 찾으시어 방도를 의논해 보시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날 저녁 8시가 되어 그 일꾼이 정문에 나가니 장군님께서는 이미 나와 계시었는데 웬일인지 승용차가 없었다. 걸어가실 차비시었다.

아니나다를까 그이께서는 퇴근하느라고 버스정류소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맨 뒤에 가 서시었다.

버스가 가물에 콩나듯 드문드문 나타나다보니 사람들의 줄은 좀처럼 줄어들 줄 몰랐다. 일꾼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장군님을 앞자리에 모시려고 하였으나 그이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제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어 버스에 오르시었다. 버스 안은 비좁아 발을 옮겨 놓을 틈도 없었다. 추위에 떨던 사람들이 저마다 운전사에게 한마디씩 하였다.

≪날씨가 차서 버스도 땅에 얼어붙은 게 아니요? 요즘 버스가 왜 이 모양이요?≫

≪고장나서 모두 장기휴가를 받았지요.≫

≪고장나면 고쳐야 할게 아니요?≫

≪부속품을 깎아주는데가 어데 있소? 버스를 탈 때에는 모두 흰소리를 치지만 정작 부속품 때문에 찾아가면 쓴외보듯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속품이 걸렸구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 교통이 번잡한 네거리 교차점에 버스가 오랫동안 멈춰 서자 손님들은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어느 한 정류소에 내리시어 다시 버스를 갈아타신 장군님께서는 대성구역 미산동 종점에서 내리시었다. 동행한 일꾼은 그이께서 종합대학 교원들을 찾아가시려는 가부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대학 쪽이 아니라 버스주차장으로 가시는 것이었다. 대학으로 가시기전에 잠깐 들리실 일이 있겠거니 짐작한 일꾼은 말없이 뒤따랐다. 주차장에는 고장난 버스들이 수십 대나 서 있었는데 외등 밑에서 몇몇 노동자들이 수리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고장난 이 버스들을 한꺼번에 살려 낼 신통한 방도가 없을가?≫

≪큰 공장들에서 몇 대씩 맡아 수리해주면 제꺽 될 수 있겠지.≫

≪우리 사업소 자체로는 안 될가?≫

≪선반이나 볼반 몇 대만 있어도 소수리는 할 수 있겠는데 협동생산에 물려 부속품을 보장해준다면서 몇대 있던 선반마저 가져갔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시며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던 장군님께서는 일꾼에게 이제는 밤도 깊었는데 사무실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었다.

(아니, 선생님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시더니?!)

일꾼이 의아히 생각하며 시계를 들여다보니 11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버스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예정했던 일을 미루시는 것이라고 짐작한 그는 그이를 따라 청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온지 몇 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녘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으시어 집무실로 가니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생각하신 것을 적어 보았는데 참고되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문건을 넘겨주시었다. 그 문건에는 당분간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버스사업소들을 맡아 고장난 버스들을 되살려 낼데 대한 문제 버스사업소들에 수리기지를 꾸릴데 대한 문제 도로교차점들에서 간부들의 승용차보다 인민들이 타는 버스를 먼저 통과시킬데 대한 문제 출퇴근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절할데 대한 문제 등 수도의 긴장한 여객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이 적혀 있었다. 문건을 다 읽고난 일꾼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 풀릴 것 같다고 하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이라기보다 스승의 생각을 그대로 글줄에 옮겼을 따름이라고 하시었다.

스승이라니?!

일꾼이 영문을 몰라하자 그이께서는 어제 밤 버스칸에서와 주차장에서 만났던 분들은 내가 가장 숭배하는 스승이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송시

영광빛나라 김정일세기여

1. 백두산 마루에 노을이 붉게 타
새세기 찬란히 밝아옵니다
하나된 7천만 장군님식솔
통일된 강성대국 열어갑니다
희망 넘쳐라 영광 빛나라 **김정일**세기여
희망 넘쳐라 영광 빛나라 **김정일**세기여

2. 장군님 계시는 평양을 축으로
우리의 행성이 돌고돕니다
주체의 태양계 누리를 밝혀
자주의 새세계 펼쳐집니다
희망 넘쳐라 영광 빛나라 **김정일**세기여
희망 넘쳐라 영광 빛나라 **김정일**세기여

흠모

누리에 넘치는 위인숭배열기

새 세기의 첫해, 첫달부터 위인숭배의 열풍은 전례없이 뜨거웠다.

지난해 50여개 나라에서 정당 지도자들과 정부 각료들, 정계, 사회계의 고위인사들을 망라하는 2.16경축준비위원회들이 연이어 결성되었다. 세계 6대주의 63개 나라에서 집권당과 정부의 고위급 인물들, 정당 당수들, 국제기구대표들, 각계층의 권위있고 영향력있는 인사들의 참가하에 다채로운 경축행사가 연 3백여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여러 나라 출판사들은 2월의 명절을 기념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저들을 10여개 어문으로 6천 5백여부나 단행본으로 번역, 출판했다. 세계 40여개 나라들의 1백50여개 출판보도물들이 2백50여회에 걸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특집을 했다. 올해 이 땅의 전위투사들과 변혁운동가들은 2월의 명절을 계기로 경축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그 준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는 글들을 연일 신고 있다.

평양으로 가자, 평양에 가서 21세기의 위대한 정치가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뵈워야 한다. 이것이 세계 여러 나라 각계층 민중의 한결같은 경모의 마음이다. 여러 나라의 정계 인사들, 사회활동가들, 각계층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평양행에 예약을 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유럽연합 최고위급대표단이 처음으로 지난해 5월 평양을 찾아가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았다.

위인숭배의 열풍은 **김정일**장군님의 대외활동에 의해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지난해 1월에 있은 중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에 이어 7월부터 8월사이에 있은 러시아에 대한 공식방문으로 위인숭배열풍은 최절정에 달했다.

세계는 경탄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에서 **김일성**주석님의 모습을 보았다. 도덕의리의 화신,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 제국주의에 사형선고를 내리시는 백두산장군의 불세출의 위인상에 민족과 인류는 아낌없는 찬사를 표시했다.

러시아의 주요 출판보도물들이 연 800여회에 걸쳐 보도했으며 세계 1백50여개 나라 TV방송들이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소식을 시청율이 가장 높은 시간에 특대소식으로 방영했다. 매일 세계 50여억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권위있는 정치학자들과 평론가들은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을 세계정치지도를 변화시킨 대사변이라고 평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위인열풍은 지구촌 그 어디에서나 뜨겁게 일고 있다.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배우기 위한 연구토론회, 강연회, 학습회 등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페루와 에콰토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 단체들이 **김정일**장군님께 명예칭호와 시민증, 상장과 메달들을 수여해 드리었다.

부시방한반대투쟁과 청년학생들의 자세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18일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부시는 미국회에서 한 ≪연두교서≫라는데서 ≪북은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느니 ≪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느니 하며 위험천만한 폭언을 쏟아놓았다. 부시의 이같은 망발은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이북을 모해압살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망언이며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만들려는 작태가 아닐수 없다.

이북에 대한 선전포고는 곧 동족인 이남 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 이북에 대한 침략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반도전체의 평화에 대한 파괴로 되며 우리 민중을 핵전쟁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부시의 망발에 치솟는 민족적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민중은 양키침략자들에 의해 반세기이상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하면서 분열의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격정에 목메어 천하가 동하도록 자주통일 만세를 외쳤던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성취할 것을 확약한 6월의 선언은 우리 민중, 아니 7천만 겨레의 드팀없는 자주통일의지의 포고였고 분출이였다.

그런데 부시정권의 출현으로 앞으로 달리던 민족자주통일의 기관차에 제동이 걸리고 한반도에는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영구주둔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 등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하나로 이어져가던 민족의 혈맥은 다시 단절의 아픔에로 퇴보해갔다.

남북간의 대화와 왕래가 진통을 겪고 교류와 협력,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암초에 부딪쳤으며 심지어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마저 빈 휴지장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분격할 사태앞에서 우리 백만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지난해에 이어 올 정초부터 반미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올렸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부시가 대북선전포고와도 같은 침략적 폭언을 하였으니 어찌 참을수 있단 말인가. 이 선전포고는 그대로 한 핏줄을 이은 우리 이남 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침략도발이다.

더욱이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부시의 망발이 그의 방한을 앞두고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결국 부시의 방한은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호전광의 전쟁행각이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반통일행각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부시의 방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발이고 우리 국민의 자주통일의지에 대한 유린이며 민족의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된다. 부시의 방한은 곧 민족공멸의 북침전쟁으로 이어질수 있다.

평화냐 전쟁이냐하는 엄중한 형국이 닥쳐온 이 시각 우리에게는 단호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현정세는 각계 민중이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용약 분기해 반부시반미투쟁에 과감히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통일애국에 불타는 우리 백만청년학생들은 마땅히 부시방한반대구호를 높이 치켜들고 반부시반미투쟁의 선봉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총련을 비롯한 청년학생운동단체들은 지역별, 대학별 특성에 걸맞게 부시방한의 목적과 그 위험성 등을 각계 민중속에 널리 알려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벌여 대대적인 반부시반미분위기를 적극화해야한다.

당면하여 지금 벌이고 있는 노근리양민학살진상규명, 주한미군기지되찾기 등 여러 반미투쟁역량을 총집결해서 부시의 전쟁행각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지향시켜야한다.

부시방한반대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각계 민중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정견, 신앙과 종파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해서 반부시반미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한다.

이미 지난 2일 전국민중연대와 민주노총 등 재야운동단체들이 부시방한반대투쟁을 결의해 나선 여건에서 그들과 굳게 연대해서 범국민적인 반부시반미투쟁전선을 형성해야한다. 이와 함께 상전의 방한을 고대하고 있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친미사대반통일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역적들의 기를 꺽어놓아야한다. 이렇게 하여 부시의 방한이 어제날의 식민지, 고요한 뒷동산에 대한 방한이 아니라 제놈을 맞아줄 졸개도, 발붙일 한치의 땅도 없는, 있다면 분노한 우리 민중의 반미항전만이 꽉 차넘치는 땅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로 되게 해야 할 것이다.

부시는 우리 백만청년학생들과 온 국민의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전쟁행각을 당장 취소하며 대북강경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18일

장군님의 위인상담은 특보발행
≪2.16동지회≫

경기도 수원시에서 활약하는 ≪2.16동지회≫회원들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보여주는 특보 1, 2를 발간했습니다.

특보1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헌시 ≪2월의 명절을 노래합니다≫를 비롯하여 장군님을 칭송하는 글 ≪만대에 빛날 영원불멸의 업적≫, ≪만민이 우러르는 21세기의 태양≫, ≪우리는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삽니다≫ 등이 실렸습니다.

특보2에는 ≪위인의 거룩한 발자취≫라는 제목아래 2월 16일을 맞으며 평양방송이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지니시고 광복후부터 지난해까지 1만1326개 단위에 105만8260여리의 노정을 거쳐 현지시찰하셨다고 전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이북 민중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금강산 천연바위에 ≪천출명장 **김정일**장군≫이라는 대형글발을 새겨넣은 소식도 구체적으로 실었습니다.

부시방한반대집회
전국민중연대 등

전국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소속 회원 1천여명이 16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부시가 대북적대시정책과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시의 한국방문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지역 민중연대 등의 주최로 부산, 인천 등 전국 9곳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부시방한즈음한 시국선언
광주전남지역 각계 대표

광주전남지역 각계 대표들은 13일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시민연대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부시의 방한에 즈음한 한반도평화와 민주주의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부시는 자국의 패권과 군수산업육성을 위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민중을 전쟁공포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선언문은 지금이 비상시국임을 인식하고 한반도평화와 7천만 겨레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새로운 국민운동을 펼쳐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강승섭목사 등 각계 대표 2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회창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한총련

한총련은 9일 이회창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총련은 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물론 종교인과 문학예술인들까지 부시의 발언에 강한 반발을 표시하는 마당에서 정치권이 강력한 항의는 고사하고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오히려 동족인 이북을 헐뜯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한총련은 부시가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 대해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미국이 이남에 공격형 미사일을 팔면서 북의 미사일을 문제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세상에서 가장 많은 대량살상무기의 생산, 보유국은 바로 미국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총련은 미국이 진정 세계평화를 원한다면 일방적 패권주의를 버려야 한다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질문했습니다. 한총련은 공개질의서에서 북미공동코뮤니케는 북미간의 오랜 적대관계청산을 약속한 것으로써 미국이 이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펼치는 것은 약속위반이자 외교관례를 뛰어넘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시가 북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군사적 행동까지 감행할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회창은 전쟁이 발발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미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자국의 무기를 판매하려한다는 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회창은 노근리사건을 비롯한 미군의 양민학살문제에 대해 미국을 두둔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가, 이회창은 미군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한미행정협정을 전면 개정할 의사는 없는가고 질문했습니다.

한총련은 이상의 질문에 대해 부시의 한국행각전까지 한총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대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18일

김정일총비서께 로씨야련방 사회인문학 아까데미야 명예원사칭호 수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로씨야련방 사회 및 인문학 아까데미야 명예원사칭호가 수여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명예원사 증서와 휘장을 로씨야련방 사회 및 인문학 아까데미야 원사이며 과학원 사회정치문제연구소 부소장인 까쁘또가 14일 로씨야주재 조선대사에게 전달하였다.

까쁘또는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수많은 로작들을 집필하시여 세계사회과학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께 명예원사칭호를 수여해 드리는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으로 된다.

로씨야주재 조선대사관서 2.16경축연회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 경축연회가 14일 로씨야주재 조선대사관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로씨야정부 부수상 클레바노브와 국가회의 부의장 쥐리놉스끼를 비롯한 국가회의 대의원들, 로씨야외무성 부상 로슈꼬브를 비롯한 외무성일군들, 정당, 사회단체, 출판보도계 책임일군들, 기타 각계인사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박의춘 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립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로씨야정부 부수상은 연설에서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은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정치관계뿐아니라 경제협조발전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외무성 부상은 연설에서 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로씨야에서도 2월 16일은 뜻 깊은 날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현명성과 생활경험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계승하시여 로씨야인민과 조선인민사이의 선린, 우호의 전통 그리고 로조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다방면적인 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로씨야는 조선반도에서의 호혜적인 경제계획실현을 촉진시키게 될 조선의 북남사이의 정치분야에서의 협조발전전망에 대하여 특별히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조는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관계뿐아니라 조선에서의 정세정상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오늘 조선인민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길로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로씨야인민은 조선인민이 새 세기에 새로운 성과와 승리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말하였다. 그는 로조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하면서 이러한 성과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와 뿌찐대통령의 정력적인 활동의 결과이라고 말하였다.

국가회의 부의장은 연설에서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도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나라로서 세계의 귀감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씨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많은것을 배워야 한다. 조선은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자기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두 나라 수뇌분들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좋게 발전하고 있는 로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

재미동포예술단과 국립교향악단의 합동공연

재미동포예술단과 국립교향악단의 합동공연이 17일 윤이상음악당에서 진행되였다.

또한 류태영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축하단, 림용모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출연자들은 21세기의 태양으로 만민의 칭송을 받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나가는 조선인민과 해외동포들의 혁명적기상과 전투적기백을 감명 깊게 형상하였다.

재일조선인예술단공연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애국의 꽃≫이 17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최청산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들과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우리가 드리는 꽃 제일 고와라≫의 기악과 가무로 공연의 막을 올린 출연자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애국의 꽃을 드리고 싶어 하는 재일동포들의 한결 같은 마음을 예술적화폭에 담아 감명 깊게 보여 주었다.

공연은 위대한 장군님께 다함없는 축원의 인사를 드리는 재일동포들의 심정을 훌륭히 형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외국손님들 여러곳을 참관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에 참가한 국제기구 대표들과 여러 지역, 나라의 대표단, 대표들이 17일 주체사상탑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주체사상탑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탑과 군상들을 돌아 보았다. 이어 손님들은 탑전망대에 올라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이날 손님들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참관하였다.

한편 홍콩하동신탁기금회 주석 하홍장일행은 이날 제6차 **김정일**화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2월의 명절에 펼쳐 진 신기한 자연현상

경사스러운 명절인 2월 16일 백두산지구에서 신기한 자연현상이 나타나고 장엄한 해돋이가 관측되였다.

백두산에는 지난 6일부터 안개가 끼고 눈이 내리면서 초당 57**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으나 13일부터 안개가 걷히고 하늘이 열리였다.

그리고 2월 16일 해돋이가 시작되던 아침 7시 20분경 바람이 잦기 시작하였다.

이때 백두산의 기온은 2월 평년에 비하여 가장 높은 령하 14.5도를 기록하였으며 바람속도는 초속 1**m**에 불과하였다.

하늘은 신기할만큼 맑고 날씨는 매우 온화하였다.

백두산기상관측소와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 일군들은 특이한 자연환경속에서 백두산의 해돋이, 조선의 해돋이를 크나큰 흥분속에 부감하였다.

한편 백두산밀영지구에서는 지난해 10월 10일 첫눈이 내린 때로부터 지금까지 눈이 내린 날들이 모두 60일이였으며 16일현재 백두산밀영고향집주변의 눈높이가 60센치메터에 이르고 있다는것이 관측되였다.

이 특이한 자연현상과 관측자료를 놓고 관측원들과 전문가들은 오늘의 날씨는 백두광명성이 솟아 오른 력사적인 그날의 날씨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미군과 ≪자위대≫ 협력강화모의는 전쟁의 불을 지피려는 위험한 움직임

최근 미국의 워싱톤에서 미일군부관계자들이 모여 쑥덕공론을 벌리였다. 여기에서 미일은 우리의 ≪대량파괴무기개발≫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사이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지금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은 매우 위험한 계선에 이르고 있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우리에 대한 무력사용을 감행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바로 이러한 때 미일군부세력들이 우리의 ≪대량파괴무기개발≫을 걸고 들며 미군과 ≪자위대≫사이의 협력강화를 모의한것은 새로운 조선전쟁의 불을 지피려는 위험한 움직임이다. 얼마전 부쉬는 앞으로 미국의 ≪반테로전≫목표에는 ≪국제테로조직≫뿐아니라 ≪대량살상무기개발국≫도 포함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미국은 우리를 ≪대량파괴무기개발국≫명단에 올려 놓고 있다. 미국은 ≪반테로≫의 간판밑에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감행하려 하고 있는것이다.

여기에서 미국은 군사경제적잠재력이 큰 일본을 대조선침략정책수행에 끌어 들이려 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제의 조선전쟁마차에 올라 앉아 조선재침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는것이 없으며 위협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미싸일을 만드는것은 더욱더 엄중해 지는 미국의 새로운 조선침략전쟁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자위적인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하여 우리가 미국의 ≪반테로전≫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오늘 세계에서 진짜 악의 제국은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불량배국가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숱한 대량살륙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도처에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간섭과 침략전쟁을 감행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 교란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범죄행위는 뒤전에 밀어 놓고 우리 나라의 있지도 않은 ≪대량파괴무기개발≫을 터무니없이 걸고 ≪악의 축≫이라는 감투를 뒤집어 씌우며 군사적으로 압살하려 하고 있다.

이제 남은것은 미국이 언제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전쟁의 포문을 여는가 하는것뿐이다.

우리는 미국이 황당한 구실을 내대고 새로운 조선전쟁의 불을 지피려고 악을 쓰며 달려 드는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

우리는 침략자들에게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불질을 하는 모든 침략자들에게 천백배의 보복징벌을 안길것이다. 미호전세력들은 타격권이 마치도 저들에게만 쥐여 져 있는 특허권처럼 생각하다가는 큰코를 다칠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반동들 역시 미제와 야합하여 조선전쟁에 뛰여 들어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고 날뛰다가는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일반동들은 조선침략정책이 심각한 오유로 된다는것을 알고 들뜬 전쟁열기를 식히는것이 좋을것이다. (로동신문 18일 논평)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평양합동회의 진행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평양합동회의가 17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에 참가한 국제기구대표들과 지역 및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 문재철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 지뗀드라 샤르마의 개막사에 이어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최근 조선반도정세는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나라의 통일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으로 특징 지을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와 세계적판도에서 벌어 진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운동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은 이 통일을 이룩하자면 오늘도 래일도 6.15북남공동선언을 통일의 리정표로 내세우고 그를 철저히 리행하는 길외에 다른 길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회의가 조선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련대성운동을 추진시켜 오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들과 각국 단체들의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조선통일지지운동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는 중요한 방도들을 제시하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총서기 후안 까레떼로 이바네스, 민주꽁고-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오떼떼 가스똥 음보요, 베네수엘라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대표 마리쏠 루이스,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일본부인련락회 대표 시미즈 스미꼬, 방글라데슈조선친선협회 치타공지부 서기장 가지 샤흐자한, 조선통일지지 아시아지역위원회 서기장인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옴 프라카쉬 만뜨리, 로씨야까렐리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대표 위또르 예고로브, 수리아농민총동맹 위원장 이브라힘 샤미에, 세계평화리사회 집행비서 아타나시 파필리스,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유리 쎄싸르 까스뜨로 로메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대표위원 시미즈 쥰, 에스빠냐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데 베노스, 로씨야작가동맹 대표 알렉싼드르 브레쥬네브, 에짚트조선친선협회 대표 무함마드 카말 알 까디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준렬히 규탄하고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서명운동과 같은 각종 운동들을 적극 벌려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연설한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 조선위원회 김진범부위원장은 온 세계가 걸출한 정치가로 공인하고 있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옳바른 통일강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평양합동회의 결의가 채택발표되였다.

결의에는 나라를 통일하며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서명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가며, 조선반도에서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분위기를 가로 막고 6.15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강화해 나가며 이 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위협을 저지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련대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 나갈것이라는것이 지적되여 있다.

또한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편지가 랑독되였다. 편지는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대조선적대시정책들을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정책으로 규탄하였다. 편지는 현 미행정부가 조선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는데 장애로 되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즉시 철수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모든 합동군사연습들과 도발행위들을 그만둘것을 공약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고 조선민족의 화해와 자주적평화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것을 요구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평양합동회의 결의

인류가 평화에 대한 기대와 념원을 안고 21세기에 들어 선 오늘에도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반도의 분렬은 의연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하여 조선인민은 커다란 민족적불행을 겪고 있다.

조선인민이 세기를 이어 겪고 있는 민족분렬의 고통과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분렬된 국토와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기 위한 조선인민의 장구한 투쟁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속에 끊임없이 계속하여 왔다.

특히 세기가 교차되는 력사적인 시기에 북과 남이 합의서명한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은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였으며 유엔은 조선의 북남공동선언을 열렬히 지지환영하였다.

올해는 조선의 통일을 위한 3대원칙이 발표된 때로부터 30돐이 되는 해이다.

우리들 합동회의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뜻깊은 올해를 조선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선포하였으며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가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서명운동을 벌릴것을 발기한데 대해 전적으로 지지환영한다.

이에 호응하여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평양합동회의는 오늘 평양에서 조선인민의 정의의 통일위업을 지지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를 채택발표한다.

1. 우리들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조선통일3대헌장에 따라 나라를 통일하며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서명운동을 힘 있게 벌려 나갈것이다.

6.15북남공동선언과 조선통일3대헌장은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힘으로 이룩해 나갈것을 온 세계에 선포한 민족자주선언이며 조선통일의 최고강령이다.

조선의 통일이 당사자들인 북과 남사이에 해결되여야 할 조선민족내부문제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 나가도록 각방으로 지원하자.

2. 우리들 합동회의참가자들은 조선반도에서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분위기를 가로 막고 6.15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강화해 나갈것이다.

오늘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은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진보세력과 그를 부정하는 반동세력간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고 있다.

우리들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보안법≫을 비롯한 온갖 법적, 제도적, 물리적 장치들을 해체할것을 요구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반통일적인 언행들과 그를 부추기는 불순한 시도들에 단호한 타격을 주며 조선의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 나가자.

3. 우리들 합동회의참가자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위협을 저지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련대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 나갈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통일은 세계의 평화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그의 주되는 장애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남조선강점 미군이다. 특히 미국대통령은 최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모독하는 발언을 련발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기의 호전적본색을 국제사회앞에 여지없이 드러 내 놓았다.

미국은 주권국가에 대한 중상과 무모한 전쟁위협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조선반도에서의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공동투쟁을 세계적범위에서 벌려 나가자.

미군의 조선전쟁범죄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재판하여 국제사회계에 파문을 던진 지난해 뉴욕에서 진행된 국제전범법정의 의의를 살려 미국이 저지른 모든 범죄행위들과 전쟁정책을 폭로규탄하는 새로운 국제법정을 설립하자.

본 합동회의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진보력량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활동을 과감히 전개해 나감으로써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기 건설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평양합동회의 참가자일동

2002년 2월 17일
평 양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 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 강좌 제174회

학사 김장호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18일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온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맞이한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만이 아닌 세계 진보적 인류도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전세계 자주화 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60성상은 우리 조국과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시고 인류의 자주화 위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성스러운 투쟁사입니다. 세계가 공인하는 정치원로만이 수록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런 연대기 희세의 위대한 인간만이 아로 세길 수 있는 이 불멸할 업적의 행로가 우리 장군님의 60성상입니다. 정녕 우리 인민의 장장 60성상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불멸의 연대기를 이어오신 이렇듯 위대한 장군을 모시고 있기에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태양민족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칠 수 있다고 긍지높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겨레는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영도 따라 나갈 때 조국통일도 민족의 번영도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국통일 위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역사 결속강의로써 ≪민족의 위대한 태양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 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희세의 천출위인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신 비길 데 없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를 가진 최상의 행복감에 휩싸인 우리 겨레의 감격과 기쁨은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온 겨레는 우리조국과 민족의 열렬한 수호자 보호자이시며 우리 운명의 개척자, 행복의 창조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조국통일 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조국통일 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이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를 드팀없이 받들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여기에 민족자주, 통일위업 완성의 길이 있으며 **김일성**조선, 태양 민족의 끝없는 융성번영과 후손만대의 무궁한 행복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관철하여야 하며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수령이 위대하여 당도 인민도 조국도 위대하고 그 존엄과 긍지를 세계에 떨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에 우리 인민이 철의 신념으로 간직한 역사의 진리입니다. 우리 온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때 조국의 통일도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도 있으며 우리 민족의 영원한 미래와 행복, 번영이 기약되어 있다는 것을 철의 진리로 더욱 심장깊이 세기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시대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사상리론의 거장 영재이십니다. 수령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사상의 위대성에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영도는 그이의 천재적인 사상이론 활동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통찰력 비상한 탐구력과 분석력, 지칠 줄 모르는 창조적 사색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비상히 발전 풍부화 하시고 독창적인 사상이론 활동으로 시대와 역사가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모든 이론 실천적 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이며 전면적인 해답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적인 민족자주의 통일사상을 구현하시여 가장 정확한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심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어 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시어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조국통일을 이룩할 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은 그이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 전면적으로 집대성 되어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노작들은 조국통일의 불멸의 총서로, 강령적 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관철해 나갈 때 조국통일 위업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영활한 지략으로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맞받아 헤쳐 가며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비범하고 세련된 영도력과 가장 뛰어난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을 지니신 영도의 거장이십니다. 오늘 세계는 위대한 장군님을 현시대의 가장 뛰어난 정치지도자로, 군사전략가로, 사회주의운동의 원로 정치가로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민족번영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성상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운동에서 제기된 세기적인 변혁과 경이적인 성과들은 어느 것이나 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격폐상태에 있던 북남사이에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이의 세련된 영도에 의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노선과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시위되였으며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지지와 연대성이 보다 강화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수십년간에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련된 영도야말로 조국통일위업완수의 근본담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가장 숭고한 덕망과 인간애로 만사람을 넓은 한품에 안아주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지니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해내고야 마십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에서 기본 특징을 이룹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한번 믿음을 주면 그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 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조국통일 위업에 복종시키는 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십니다. 그리고 한없이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이처럼 온 민족을 민족단합과 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진정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은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을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고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을 차별 없이 다 품어주는 위대한 태양의 품, 진정한 어버이 품입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은 탁월한 사상과 영도력, 덕망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이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 따라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 따라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 공동사설에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올해 우리 전민족은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에 이정표입니다. 민족자주통일의 지름길은 6.15북남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들고 모든 것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6.15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거세하는 사람은 민족반역자입니다.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가도록 하여야합니다.

다음으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통일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지금 조선 반도에서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는 원인은 이른바 반테러의 명목 밑에 감행되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 호전분자들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에 있습니다. 새 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 있는 정세하에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자주통일에로 향한 거세찬 민족사적 흐름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올바른 민족통일강령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련된 영도로 더욱 밝아지고 있는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세계 진보적 인류는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는 뛰어난 사상이론과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력, 고매한 인품과 덕망으로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백전백승의 위대한 영도입니다. 우리 온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 따라 시련의 수만리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어떤 풍파가 닥쳐온대도 오직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 따라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 위업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시방한 첫 날, 전국에서 부시방한반대투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19일에도 시민 ·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미국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시위와 집회가 봇물을 이뤘다.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등으로 구성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한반도 평화실현과 전쟁반대를 위한 종교인 대회≫를 열어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9개 단체도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오후 부시대통령이 도착한 경기 성남시 세곡동 서울공항 정문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철회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 △무기강매 중단 등을 촉구했다.

주한 미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도 각종 집회와 시위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11시께 광화문 케이티 건물 앞에서는 민주노동당 여성당원 10명과 어린이 5명이 노란색 두건을 쓰고 노란색 꽃을 든 채 평화선언식을 열었으며, 시민 · 사회단체 관계자들의 1인 릴레이 시위도 하루종일 이어졌다.

한겨레 2002/02/19

부시방한 첫날, ≪그림자투쟁≫ 시작

부시 미대통령이 방한한 19일, ≪그림자 투쟁≫이 성남공항에서부터 시작됐다.

19일 오후 3시 ≪부시방한반대 제단체 연석회의≫는 성남공항 한국공군 정문 앞에서 ≪부시방한반대 성남공항 긴급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가졌다.

시민사회단체 회원, 청년, 학생 등 30여명은 오후 2시 양재동 서초구민회관 정문 앞에서 모여 성남공항으로 출발했다.

참가자들이 한국공군 정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경찰병력은 참가자들을 인도쪽으로 밀기 시작했고, 주최측은 합법적 시위를 보장하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1시간 가량 집회참가자들과 경찰들의 밀고당기는 몸싸움 끝에 결국 기자회견은 한국공군 정문옆 좁은 인도 위에서 시작됐다.

사회를 맡은 김종일 자통협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장소인 인도까지 침탈해서 평화집회를 가로막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경찰을 강력 규탄했다.

먼저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가 ≪민족공조를 방해하고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항의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또, 홍근수 상임대표는 ≪90여년 전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했던 3.1운동의 정신으로 지금 미제국주의에 항거해야 민족에게 희망과 장래가 있다≫며 ≪부시가 전쟁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려한다면 지금 당장 되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문정현 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최측은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침략전쟁 강요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획책 △MD강요, 무기강매 등을 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참가자들은 부시대통령이 차량으로 이동할 것을 대비하여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집회장소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시 미대통령이 4시 45분경 성남공항에 내려, 10분 쯤 후에 헬기를 타고 용산 미군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자 참가자들은 그림자 투쟁을 다음날 아침 9시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옥인동 범혜사 앞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5시 50분경 집회를 마무리했다. .

≪악의 축≫은 ≪소름끼치는 얘기≫

새해맞이 준비위, 부시방한 관련 기자회견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이룰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하기를 바란다.≫

≪통일을염원하는2002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9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부시 미대통령이 방한하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장래 민화협 상임의장은 취지설명을 통해 최근 부시 미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로서는 소름끼치는 얘기≫라며 ≪4대 강국에 의해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돈명 준비위 공동준비위원장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부시 미국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이들과 우리 7천만 겨레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최근 부시 미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발언과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나 미국의 미사일방어(MD)와 관련한 국방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키는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부시대통령의 이런 정책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부시 미대통령에게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것 △이북과 대화와 협상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 △평화협정 체결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이룰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할 것을 제언했다.

끝으로 준비위는 ≪여당과 야당도 민족의 운명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족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요인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이번 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은 ≪부시방한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현재 정세가 긴장된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교류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고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7대종단, 민화협, 통일연대가 이미 각각 입장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이번 발표는 ≪더 깊이 하나되는 아름다운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7대종단 등으로 구성된 준비위가 부시 미대통령의 서울 방문에 즈음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환하라는 성명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것은 ≪한국≫의 시민사회 대부분이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준비위측은 밝혔다.

한편 준비위는 당초 19-21로 예정된 ≪민족의단합과통일을촉진하기위한 2002 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을 부시방한 일정과 겹치는 민감한 시점이라는 이유로 26-28일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연기한 바 있다.

김치관기자
통일뉴스 2002/02/19

한 · 일 공동선언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부시 미국 대통령 방일과 방한에 반대하는 한 · 일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24일 ≪부시방한반대 제단체 연석회의≫에서 부시의 방한과 방일에 한일민중들이 공동대응할 것을 일본측에 제안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은 취지설명을 통해 ≪제국주의 나라들에도 투쟁하는 민중들이 있다≫며 ≪이 보배로운 존재들과 굳게 손잡고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행진을 다그치자≫고 기자회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쟁확대 중단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반환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위대 철수 등 8개항의 공동요구가 담긴 ≪부시 미국대통령 방일과 방한에 반대하는 한일(일한) 시민, 민중들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한편, 주최측에 따르면, ≪한일공동선언문≫은 일본의 ≪부시방일에 항의하는 행동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히로시마, 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있었던 부시방일반대집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있은 반대집회

미대사관 앞, 집회시위

≪저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이 많지만, 전쟁이 나쁘다는 것은 어린이인 저도 압니다.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세요.≫

미국 부시대통령이 공식 방문하는 날 19일. 전경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8살의 문준수 어린이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이같은 ≪평화 쪽지글≫을 낭독했다.

이어 백발이 성성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의 인근 지역에서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이같이 호통쳤다.

경찰은 비슷한 시각 미 대사관으로 향하는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처장의 1인 시위 피켓을 빼앗아 부수었다.

서울 광화문 일대는 수천여 명의 정사복 경찰력이 삼엄한 경비를 펼쳤고 오전부터 예정돼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평화적인 집회와 기자회견도 원천 봉쇄되거나 물리적으로 저지당했다.

또 오후 들어서 종로와 세종로, 광화문 일대에는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통행하는 시민들과 잦은 말다툼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우선 오전 10시께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처장과 일행 3명은 미 대사관 앞을 지나가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환경운동연합 소속 일행이 지닌 피켓까지 빼앗아 부수었고 대사관 앞길 통행을 가로막았다.

11시 미 대사관옆 ≪한국≫통신 건물 앞에서 예정된 ≪민주노동당 소속 여성, 어린이 반전평화선언≫ 기자회견 역시 경찰 제지에 따라 파행으로 진행됐다.

경찰에 밀려 구석에서 약식으로 이뤄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준수(8) 어린이를 비롯한 4명과 여성 15여 명이 평화선언문과 부시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들이 미 대사관에 전달하려던 노란 카네이션은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또 12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의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역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19일 오후 5시께 서울 세종로 일대는 정, 사복 경찰 수천여 명이 모든 도로 주변과 지하차도 등에 대한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 특히 세종로 이순신 동상 주변 화단에도 경찰 수십여 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됐으며 세종로 1차선은 경찰 기동대 버스를 주차시켜 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세종로 일대 도로주변 이외 세종문화회관 등 각 건물 2, 3층에도 비디오 카메라를 가진 사복 경찰관들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한 현장 채증 준비를 하고 있었다.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한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나온 병력이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 수도 한가운데에 이같이 많은 경찰력이 배치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기자
오마이뉴스 2002/02/19

대구경북각계대표 시국선언, 21일까지 규탄행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거세게 일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방한일인 19일에도 대구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방한반대 행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오늘 오전 10시 대구참여연대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각계대표 305인은 부시방한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지역 각계대표들은 ≪부시는 테러방지를 명분삼아 아프간에서 전쟁의 폭음을 올리더니 급기야 중동, 한반도에까지 전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시의 발언과 일련의 강경 정책의 뿌리가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패권전략의 일환임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북강경정책은 결국 햇볕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아왔고, 부시 행정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200억 달러를 요구하며 F-15기 등 미국의 무기 강매를 위해 다양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각계 대표들은 △미국의 패권전략과 한반도 정책 수정 △미국민들은 잘못된 자국정책에 반대, 세계평화에 동참해줄 것 △한국정부와 여야당은 정상회담 등에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각계대표 305인은 학계(32명), 문화계(15명), 법조계(5명) 시민사회 노동단체(7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국선언 발표와 함께 같은 날,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지부장 김기수)도 성명을 내고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시지부는 성명에서 ≪(이번 부시방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에 부시가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이북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수출을 금지하라고 하면서, 한국에는 전투기를 강매하는 부시는 인정머리 없는 베니스의 상인보다 못한 ≪죽음의 아메리카 상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성명은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부위기를 부추겨 대량살상 군수무기를 강매하려는 부시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부시의 군수무기 강매에 김대중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대구지역에서는 19일에서 21일까지 각종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16일부터 계속된 미군기지 앞 ≪부시방한 규탄≫ 1인 릴레이 시위가 21일까지 이어지고, 19일 오후 5시에는 대구참여연대가 대구백화점 앞에서 부시방한과 관련 ≪시민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1일 오후 2시 캠프워커 후문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대구경북지역 각계대표 시국선언 참가자

시국선언 대표 (5명) / 학계 (32명) / 노동계(69명) / 종교계 (9명) / 농민 (10명) / 법조계 (5명) / 시민사회 노동단체 (71명) / 문화계 (15명) / 여성계 (13명) / 개인 (9명) / 청년학생 (56명)

이승욱기자
오마이뉴스 2002/02/19

교사들도 부시방한반대 성명

전교조,시군구 지회장들, 선언

전교조(http://eduhope.net/)는 시. 군. 구 지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전국의 지회장 244명은 18일, ≪부시대통령 방한반대 전교조 지회장 선언≫을 통해 부시대통령 방한반대 및 현 상황에 대한 입장 밝혔다.

선언에 참여한 지회장들을 대표하여 이태권 서울 사립 중서부 지회장(풍문여고) 등 수도권 지역 지회장 10명은 18일(월) 오전 11시, 미국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여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제지와 농민, 노동자 시위 등으로 서한전달은 이루지 못했다.

이경희 대변인(전교조)는 ≪부시방한과 관련해 미대사관 주변의 통제로 서한 전달이 무산되었지만 언론사, 현장 기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 지회장들은 선언문을 통해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은 우리 민족의 절박한 생존 조건≫이라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열어갈 미래의 주역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미국의 폭력적인 세계패권 추구와 군산복합체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이 희생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부시 정부에 대한 분노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을 모아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북, 이라크, 이란이 악의 축이라는 발언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강경 입장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진전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대장정을 훼방놓고, MD 구축을 강행하며, 고가의 무기를 강매하려는 등 분단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9.11 테러의 근본 원인이 바로 미국 자신의 무리한 패권 추구에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빌미로 세계를 대결과 전쟁으로 몰아가려는 미국의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선 ≪우리 정부 또한 부시 대통령과의 이번 만남에서 미국의 이런 기도를 바꾸어 놓을 자신이 없다면, 우리의 민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갈 의사의 표현으로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경희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가 대북강경 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며...우리 민족의 시대적 과제인 ≪통일≫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우리의 미래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의무와 책임을 느끼고 있기에 교사들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것 뿐이다≫고 밝혔다.

김용한기자
유뉴스 2002/02/19

사회당, 한반도 평화군축 촉구 결의대회

부시 미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중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잉사의 구식 F15 전투기 구입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F-15 전투기 1대 가격이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1300억 원이다. 부시가 원한다는 100대 만큼을 구매하면 총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3조 원에 달한다. 13조 원이면 1년치 ≪한국≫ 국방비 전체 규모와 맞먹고 사회복지 예산의 4배에 이른다. F-15 전투기는 우리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싼 고철≫이다.

보잉사의 F-15 전투기는 미국, 일본 등이 조만간 다른 전투기로 교체할 계획인, 70년대에 개발된 구식 모델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보잉사 대신 록히드 마틴사의 기종을 선택하면서, 곤경에 빠진 보잉사를 구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한국≫ 정부에 전투기 구입을 강요해왔다. ≪한국≫마저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F-15기를 선택하지 않게 될 경우, 부시 행정부 탄생의 지원자인 군수산업체 보잉사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19일, 사회당은 보잉사 본사가 위치한 건물 맞은 편인 서울 중구 조흥은행 앞에서 ≪F-15 전투기 강매 반대, 한반도 평화군축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고철F-15≫ 전투기 모형을 해머로 두들겨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F-15 전투기 반대! 평화군축! 반전평화≫를 외치며 명동성당까지 행진했다.

또 같은 날, ≪≪한국≫ 정부는 F-15 전투기를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통해 ≪부시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F-15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흥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상호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수립에 위배되는 일이다. 또한 이 거래는 한반도 긴장체제를 존속 ·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이북의 대 한반도 정책을 강경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도 노동자도 학생도 부시반대

광주전남지역 잇따른 시위, 반미감정 고조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방한을 두고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교수들이 미국의 패권주의와 대북강경 정책을 경고하며 ≪부시방한반대≫ 시위가 연일 잇따르는 등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노근리 학살사건 등 현안 해결에 나서야

18일 오전 9시 30분 광주전남지역 교수 205명은 ≪평화와 민족자존을 위한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 명의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라크, 이란과 함께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전 세계를 다시 경악케하고 있다≫며 ≪이 발언은 우리 정부가 우방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추진해온 햇볕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미사일 방어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이북을 자극하기 전에 노근리 학살사건과 4·3제주 민중항쟁 때 미군의 만행, 부당한 한미행정협정 개선 등 현안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패권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전세계적인 반미감정과 저항은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광주전남민중연대회의 80여 명은 낮 12시부터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부시방한을 반대하기 위한 천막농성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고기담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대외협력부장은 ≪이미 광주역에서는 수많은 천막농성에 대해 경찰은 언제 한번 불허한 적이 없다≫면서 ≪해방 이후 미국이 저지른 만행과 경제적 침탈을 반대하는 농성을 막는 것은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중연대회의는 애초 18일 낮 12시부터 부시가 떠나는 21일까지 ≪부시방한 결사반대≫를 위한 천막농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날 천막농성을 두고 경찰과 민중연대회의의 실랑이는 계속됐으며 10여 명은 19일 새벽까지 노상농성을 벌였다.

보잉사무기상인 부시방한반대

이와는 별도로 오후 광주공원에서는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연대, 광주전남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는 ≪한반도 평화 위협 부시방한 규탄대회≫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인사말에 나선 김종현 시민연대회의 상임집행위원장은 ≪세계에서 대량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고 있다≫면서 ≪부시는 100여 대가 넘는 F15-K을 비롯한 100억 달러가 넘는 고철덩어리를 강매하기 위해 방한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반대 부시반대≫를 외치며 금남로 1가 광주YMCA까지 시가행진을 가졌다. 이들은 광주YMCA 앞에서 약식 집회를 갖고 부시방한에 대해 ≪자신들의 MD체제에 남한을 편입시키고 보잉사 에프15케이 구매를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한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모두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버리고 평화와 통일로 함께 가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이날 여수에서는 여수사랑청년회 40여 명이 규탄대회를 가졌으며 광주전남민중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21일 부시가 출국일까지 광주역 등에서 계속적으로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강성관기자
오마이뉴스 2002/02/19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기자회견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18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인학살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복녕 전국유족회 고문은 ≪100만 민간인학살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없이 부시는 이 땅에 한 발도 디딜 수 없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최근 미국 상원의원들이 ≪노근리 사건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최근 영국 BBC방송이 ≪학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체계적인 명령에 의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살 만행임을 폭로≫했다고 소개했다.

전국유족회는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모든 민간인 학살 사건을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방한 중 미 최고위층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을 요구≫했다.이재기 상임공동대표는 미군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사례 를 소개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뒤 상륙 첫날에만 1,300여명의 민간인이 학살되고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5,909명의 주민들을 공산분자로 매도 검거투옥, 학살하는 등 전국적으로 50여 지역에서 피해사례가 증언되고 있다면서 29건의 사례(를 명시했다.

김상태 상임공동대표는 ≪민간인학살 문제 한미정상회담 의제채택 요구서≫ 를 통해 ≪우리 유족들은 학살이 일어난 1950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52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단 한순간도 분노와 한을 잊어본 적이 없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 유족들의 처절한 몸부림에는 철저한 탄압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요구사항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민간인 학살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 할 것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민간인 학살의 자료공개 및 진상을 규명하고 민간인 학살 만행에 대해 그 유족과 ≪한국≫ 국민들에게 사죄배상 할 것을 제시했다.

교회에 내걸린 ≪부시는 사탄≫ 현수막

≪이 시대의 ≪사탄≫을 보라.≫

진주평강교회 건물 외벽에 내걸린 현수막 문구다. 경남 진주시 옥봉동 삼거리 옆에 있는 평강교회 건물에 18일 오후부터 현수막이 내걸려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 부시의 얼굴을 그려 놓고, 그 밑에 이같은 문구를 새겨 놓았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진주평강교회는 박광희(47) 목사의 제안에 따라 교인들이 토론을 거쳐 현수막을 내걸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 동기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작은 저항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회 나름대로 플래카드를 내거는 게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 부시 미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시 미대통령 아버지는 성공회 신자였던 것으로 안다. 부시 미대통령은 최근 ≪악의 축≫이니 ≪전쟁의 해≫ ≪최악의 상태≫ 등의 발언을 했다. 기독교의 기본 원리는 ≪평화≫다. 부시의 발언은 평화와 전혀 맞지 않다. 역사를 거꾸로 가게 하는 발언이다. 그런 발언에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놓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내걸었다.≫

- 미국과 외교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당당했으면 좋겠다. 정치며 경제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은 인정한다. ≪우리≫가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알아서 기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입장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이다. 부시 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최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미국을 다녀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마치 한나라당이 이회창총재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도 좋다고 미국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왔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 부시 미대통령 방한과 관련하여 사회 갈등도 심한데, 종교인으로서 사회에 던지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연 어느 것이 옳은 지를 판단해야 한다. 어느 것이 민족에게 도움이 되고, 민족을 위해 올바른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

윤성효 기자
오마이뉴스 2002/02/19

민심체크 한미관계보다 남북관계가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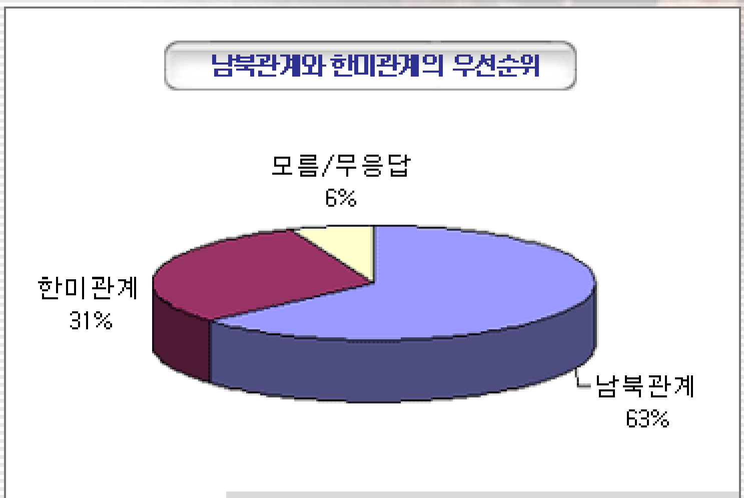
미국, ≪혈맹≫에서 ≪이해당사자≫

미국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 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변화, 그리고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외교적 강경노선 추구라는 두 가지 상황 축이 동시에 전개되면서 우리 국민의 대미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초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외교 강경파를 중심으로 기존의 포용정책 중심의 남북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준 이 같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입장이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촉발시켰던 것은 사실이다.

2001년 3월 조사의 ≪미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서 70%에 육박하는 국민은 ≪미국이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당시 나타난 이 같은 여론은 두가지 배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이 남북통일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역사적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그와 동시에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이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 행정부의 강경론에 대한 막연한 반감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미간 외교적 입장차에서 기인한 불협화음이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켰다는 해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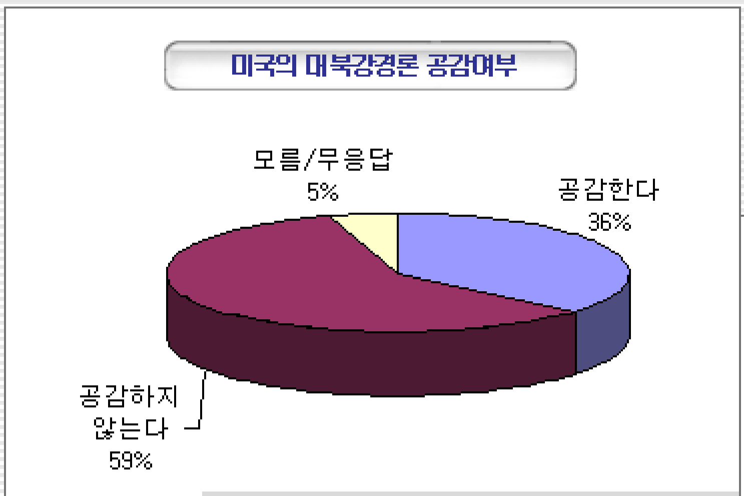


자료출처: TNS 자체자료(비공개), 2002년 2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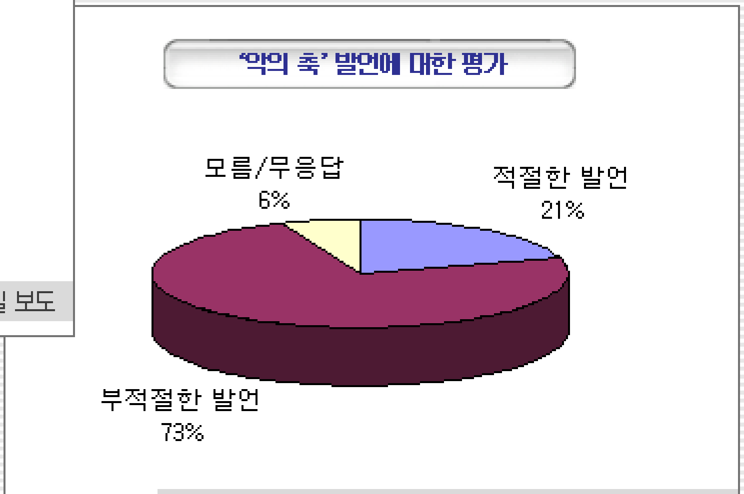
최근 2월 조사에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북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강경한 정책노선에 대한 공감도는 36%에 불과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0%에 달했다. 앞서 언급한 작년 3월 미국의 ≪대북정책 신중론≫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공감을 표시했던 것을 고려할 때,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없는 결과이다.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긴장의 핵심인 ≪악의 축≫ 발언의 경우, 우리 국민에게도 매우 감정적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이 뚜렷하다.

앞서 ≪대북강경론≫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은 59%였던 데 반해, ≪악의 축≫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 했다≫는 평가가 73%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부시의 이번 발언이 대다수 우리 국민을 부정적으로 자극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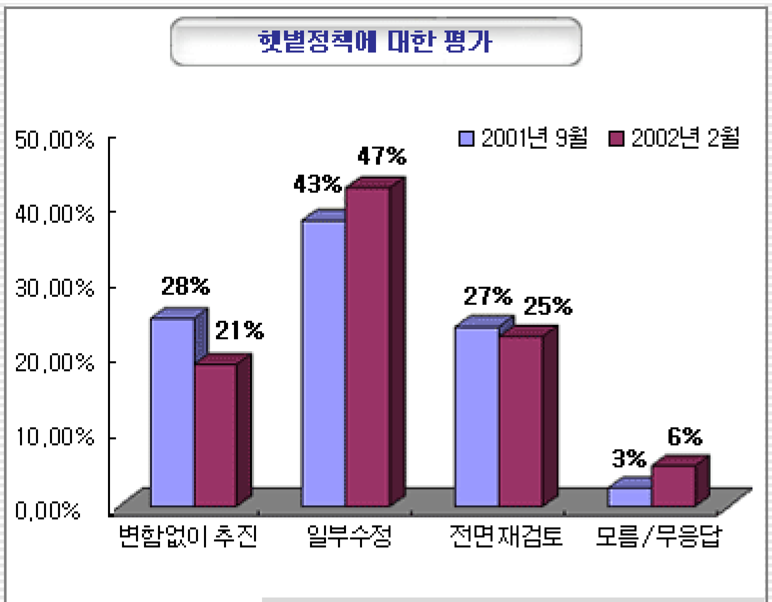
자료출처: SBS-TNS 공동조사, 2002년 2월 18일 보도



자료출처: 문화일보-TNS 공동조사, 2002년 2월 18일 보도

또한, 전통적 우호관계인 ≪한미관계≫보다, ≪남북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향후 정부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중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63%의 국민이 남북관계에 더 중점을 둔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민족정서≫가 강한 우리 국민의 교과서적 또는 명분론적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를 달리 해석하면 우리 국민의 통일외교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일대 전환을 맞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대목으로도 볼 수 있다.



자료출처: TNS 자체자료(비공개), 2001년 3월 조사

즉, 한미관계에 ≪혈맹≫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기에는 이제 많은 상황인식의 변화가 있으며, 미국을 주변 강국의 하나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사≫ 정도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변화된 시각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분단 이후 50여년간 대결주의적 정책노선이 지배적이었던 남북관계가 현 정부의 ≪포용정책≫ 이후 일대 변화를 가져왔음은 분명하며, 특히 일반 국민의 인식 역시 이 같은 정책을 정서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른바 ≪혈맹≫ 관계로 불리던 한미관계가 남북관계를 축으로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문제로 변화하고 있음도 결코 놓칠 수 없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김헌태(TN소프레스 사회조사본부장)
2002/02/19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5월말 발표

1.우리는 왜 이 글을 긴급토론자료로 제출하는가

2.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3.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과 조직문제

▶ 4.반제자주역량의 미군 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5.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철폐 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6.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7.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의 관계문제

8.제안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4. 반제자주역량의 미군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1

남측을 지배·수탈하면서 북측을 고립·압살하려고 날뛰고 있는 제국주의세력을 그대로 두고서 조선반도의 정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망상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는 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승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남북(북남)을 포괄하는 전체 조선민족의 모든 사회변혁운동은 불가피하게 반제자주화 운동의 성격과 임무를 부여받게 될 뿐 아니라 반제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따라서 민족자주위업을 수행하는 운동이 된다.

남측에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위업과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위업은 7천만 조선민족이 민족자주위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완수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운동력을 반제자주역량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민족자주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 가운데 자주강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제기된다. 자주강령은 민족자주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강령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의미를 반국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국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의 자주성이라고 하면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수탈을 받고 있는 남측에서 제국주의세력을 몰아내는 것으로 국한하여 생각하는 데 이는 반국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해다.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것은, 남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경제적 수탈을 제거하는 것과 더불어 북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정치·군사·경제적 고립·압살책동도 제거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남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지배·수탈과 북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은 떼어놓을 수 없는 상호연관관계로 얽혀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이 제거되면 다른 한 쪽도 제거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첫째로,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반제투쟁에서 반국적 자기중심주의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남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지배·약탈을 제거하고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을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단독으로 수행해야 하고, 또 단독으로 능히 완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현실에서 비켜나간 자기중심주의의 착오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단독적인 역량에 의하여 민족자주위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지배·수탈과 북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이 떼어놓을 수 없는 상호연관관계로 얽혀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민족의 자주성 문제를 반국적 관점에서 보려는 자기중심주의이다. 더욱이 그러한 자기중심주의가 민족자주위업을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을 은근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민족자주위업은 민족주체역량을 단위로 하여 완수될 수 있는 위업이지, 민족이라는 사회적 집단에 속해 있는 일부 역량이나 특정 계급에 의해서 단독적으로 완수될 수 있는

➡

광고

PDF자료집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총비서

PDF자료집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총비서≫은 인터넷 구국전선(www.ndfsk.dyn.to), 전국연합 홈페이지 각종자료게시판(www.nadrk.org)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기타자료실(www.kdlp.org)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김일성주석님의 교시
4 세기와 더불어
10 당관련 노작 목차

11 노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17 김정일총비서의 약력(1942~1998)

19 김정일장군님의 당중앙활동역사

37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

43 추앙받는 지도자

47 조선노동당총비서 추대

56 한민전 중앙위

62 축하문

63 김정일장군님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추대 반향

67 최근년 주요활동 (2000년~2001년)

93 조미공동코뮈니케

97 6.15공동선언

103 조러모스크바선언

110 김정일 장군의 노래
111 김정일 화

시
112 10 月찬가
113 축원

114 청년주체주의자대오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주체주의자들의 맹약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며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그런 위업이 아니다. 민족자주위업은 민족주체역량을 단위로 하여 추진되고 완수되는 위업이므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족대단결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한 치의 착오도 범해서는 안 되며, 민족자주위업 수행에 관하여 전국적 관점을 견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타협이나 양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민족자주위업의 실현 경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올곧게 세워져 있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자주위업 수행에 대한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전국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민족이 단결된 역량으로 남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지배 · 수탈과 북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고립 · 압살책동을 제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연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민족자주위업이 수행되고 있는 실제 경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만일 남과 북(북과 남)이 힘을 합쳐 일제히, 그리고 일거에 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바람직하게만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남측에 대한 지배 · 약탈과 북측에 대한 고립 · 압살책동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제거되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세변화를 총괄적으로 검토해보면, 북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고립 · 압살책동이 먼저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왜 그렇게 보는가? 이 문제는 당위성이 아니라 현실성을 중심으로 고찰해야 풀린다. 오늘 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어떻게 분리 · 포진되어 있으며,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역량은 그 포진구도 안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해야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해답을 얻으려 하기 전에 먼저 아래와 같은 전제를 확인하기로 한다.

제국주의세력은 절대로 저절로 물러나지도 않으며 스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이것은 철칙이다. 제국주의세력에게 물러가 주기를 청원 · 촉구한다고 하여 그들이 순순히 물러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제자주화운동을 갉아먹는 독소적 환상이다. 제국주의세력은 민족주체역량의 투쟁으로 제거해야 하며, 또 그렇게 제거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민족자주위업에 관한 모든 논의에서 이 점은 명백하게 전제되어야 한다. 제국주의세력과 반제자주역량 사이에서 승패는 어디까지나 힘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어느 쪽의 힘이 더 우세한가 하는 것이 정세변화의 동향을 파악하는 핵심이다.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는 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은 분산상태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민족자주위업은 반드시 단결된 반제자주역량으로 수행해야 한다.

조선민족이 단결된 반제자주역량으로 민족자주위업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을 때, ≪단결된≫ 반제자주역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단결이란 추상적 개념이 아니며 주체의 운동력과 생활력을 표현하는 조직개념이다. 반제자주화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결되어야 할 반제자주역량이란 곧 ≪조직적으로≫ 결합된 주체역량을 말한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민족의 단결된 힘≫을 구호로 정하고 그것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추상적 개념을 강조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족의 단결된 반제자주역량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명해야 한다.

첫째로,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명실공히 민족주체역량이 된다는 뜻이다. 민족자주위업을 실현하는 주체역량이란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조직적으로 결합된 위력적인 힘의 총량을 뜻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조직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남아있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 아직 장래의 일로 남아있는 오늘 그러한 조직적 결합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조직적 결합이란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와 지향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아직까지는 현실의 운동력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앞으로 정세가 발전하고 운동력이 강화되면 그러한 조직적 결합이 실현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며,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은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함께 힘써야 한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킨다면 지금 초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교류의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 결합의 수준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적 결합이 가능하지 아니한 현재의 조건에서 민족자주위업은 그러한 결합이 실현될 때까지 그 수행을 무한정 뒤로 미루어야 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비록 조직적 결합을 이루지 못한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민족자주위업은 수행해야 하며 한시 바삐 완수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반제투쟁은 북측과 남측의 민족민주전선이 함께 전개하고 있으나 분단선을 중심으로 분리된 상태로 포진되어 있어 그 투쟁력의 역량수준과 전개양상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문제는 오늘 조선반도에서 민족자주위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문제이며, 동시에 전국적 판도에서 반제자주역량의 포진구도를 살펴보는 문제이다.

조선반도에서 반제자주역량의 포진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민족자주위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력은 남측의 민족민주전선의 반제자주역량이 아니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에서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어떻게 제국주의세력을 반대 · 배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제국주의세력을 반대 · 배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남측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한다는 말이다. 미군이 철거되었는데도 미국이 북측에 대한 고립 · 압살책동을 지속하고 남측에 대한 지배 · 약탈체제를 계속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다. 제국주의 주둔군의 무력으로 안받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고립 · 압살책동은 무력해지며 지배 · 약탈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미군을 철거하는 과제로 집중된다.

(내일 계속됩니다)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 (1)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북과 남 사이에는 접촉과 협상이 거듭되었다.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회의가 평양과 서울, 판문점 등지에서 연이어 열렸다.

1972년 10월 12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1차 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그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집행할 것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평양에서 1972년 11월 2-4일에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2차 회의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남북조절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기능 및 운영 문제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2차 회의에서 쌍방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기초하여 197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이에 서울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3차 회의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식으로 발족하는데 합의하였다.

정식으로 발족한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남북공동성명정신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2차 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에 걸쳐 교류하며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할 것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북과 남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합작할 것을 거듭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조국통일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군비경쟁을 그만두고 군비를 축소하며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할 것에 대하여서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당한 제의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3년 3월 15일 평양에서 있은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와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있은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남북 사이의 현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와 조절위원회안에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것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 공화국 정부측은 현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아래로 줄이고 군비를 대폭 축소하며 외국으로부터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하며 우리 나라에서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북과 남 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담보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의 각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등 남북조절위원회 앞에 제기된 방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쌍방이 이미 합의한 사항에 따라 조절위원회안에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 외교분과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남북대화와 협상을 보다 폭넓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조절위원회사업은 계속 추진시키면서 이와는 별도로 시급한 시일내에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남조선측의 반대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문제들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남조선측은 말로는 ≪완전한 개방≫을 떠벌이면서도 실지로는 조절위원회안에 경제 및 문화의 2개 분과위원회만 내올(설치할) 것을 고집하면서 현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정치, 군사, 외교 분과위원회를 내오는 것도, 북과 남의 정치협상회의를 여는 것도 모두 거부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의 주장은 그야말로 아무런 제한도 없는 완전하고도 전면적인 교류를 하자는 것이며 남조선측의 주장은 제한된 부분적인 교류만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회의에서 나타난 견해상 차이는 이미 남북대화의 첫날부터 나타난 단결노선과 대결노선, 합작노선과 경쟁노선, 통일노선과 공존노선간의 원칙적 차이에 근원을 둔 것으로서 하루빨리 통일을 하겠는가 아니면 분열을 끝없이 계속하겠는가 하는 입장상 차이와 관련되었다.